



20  
21

Vol.

07

**이슈 모니터링 : 젠더 이슈 보도**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 분석 보고서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이슈 모니터링 :  
젠더 이슈 보도

04  
양적 분석

09  
내용 분석

15  
나가며

16  
부록

20  
체크리스트

본 사업은 서울YWCA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수행기관의 의견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슈 모니터링: 젠더 이슈 보도 내용 분석 보고서

‘젠더 갈등’은 최근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들은 젠더와 관련된 여론에 영향을 받으며, ‘여성 징병제’ 등과 관련된 정치권의 발언은 온라인 상에서 뜨겁게 회자되고 있다. ‘젠더 갈등’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시민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언론은 ‘성차별’, ‘성불평등’의 문제를 ‘여성과 남성의 대립’, ‘젠더 갈등’의 구도로 파악하기도 한다. ‘젠더 갈등’ 논란을 일으키는 젠더 이슈에 관한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언론 보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매체별 젠더 관련 보도 키워드 및 건수

성차별(87), 여성징병제(83), 젠더갈등(77), 남녀갈등(73), 남녀평등(61), 남성 혐오(59), 남혐(58), 이대녀(57), 메갈(56), 젠더이슈(56), 이대남(55), 백래시(51), 여혐(51), 여성혐오(48), 성평등(45), 젠더(45), 군면제(13), 성갈등(10), 출산(9), 역차별(6)

표1 \_\_\_\_\_ 모니터링 매체 및 기사 수

연번	언론사	기사 수
1	한겨레	39
2	경향신문	36
3	뉴스1	31
4	뉴시스, 한국일보	각 30
5	연합뉴스	28
6	중앙일보, 조선일보	각 27
7	여성신문	26
8	아시아경제	25
9	인사이트	24
10	이데일리	23
11	한국경제, 서울신문	각 22
12	파이낸셜뉴스, YTN	각 21
13	세계일보, 오마이뉴스	각 20
14	국민일보, 위키트리	각 19
15	머니투데이	18
16	헤럴드경제	17
17	노컷뉴스	14
18	매일신문, 서울경제	각 13
19	MBN, KBS	각 11
20	이투데이	10

1. \_\_\_\_\_ 모니터링 기사 선별 방식: 네이버 포털 뉴스에 검색되는 199개 언론사의 젠더 이슈 관련 기사 1,000건 랜덤 샘플링  
 2. \_\_\_\_\_ 총 199개 언론사 중 상위 10개 기사 수에 해당하는 28개 언론사 제시. 나머지 언론사에 대해서는 부록 참고.

## [ 양적 분석 ]

### 1 매체별 젠더 관련 보도 키워드 및 건수

총 1,000건의 기사 중 젠더 이슈 관련 키워드별로 모니터링 기사 수를 분류했다. 그리고 해당 키워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위 3개 언론사와 기사 수를 분석했다.

표2 매체별 젠더 관련 보도 키워드 및 건수

키워드	키워드별 전체 모니터링 기사 수	상위 3개 언론사 (기사 수)		
		한겨레	뉴스1	데일리안, 서울신문, 여성신문 각 4
성차별	87	한겨레 6	뉴스1 5	데일리안, 서울신문, 여성신문 각 4
여성징병제	83	한겨레 5	뉴스1 4	경향신문, 뉴스1, 아시아경제 각 3
젠더갈등	77	연합뉴스, 중앙일보 각 5	뉴스1, 뉴스1, 이데일리, 조선일보, 한국일보 각 4	
남녀갈등	73	아시아경제 6	뉴스1, 뉴스1 각 4	
남녀평등	61	YTN 6	뉴스1, 세계일보 각 4	
남성 혐오	59	한국면세뉴스 4	인사이트, 청년일보, 파이낸셜뉴스 각 3	
남혐	58	한국경제 5	국민일보 4	위키트리 3
이대녀	57	머니투데이 6	이데일리, 파인앤설뉴스 각 4	
메갈	56	인사이트 6	UPL뉴스, 국민일보 각 4	
젠더이슈	56	경향신문, 매경이코노미 각 3	국민일보, 뉴스1, 뉴스워커, 머니투데이, 이투데이, 중앙일보 각 2	
이대남	55	서울신문, 조선일보 각 5	KBS 4	
백래시	51	한겨레 8	여성신문 7	경향신문 6
여혐	51	위키트리 8	인사이트 4	MBN, 매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이투데이, 조선일보, 파이낸셜뉴스 각 2
여성혐오	48	경향신문, 한겨레 각 4	MBN, 한국일보 각 3	

키워드	키워드별 전체 모니터링 기사 수	상위 3개 언론사 (기사 수)		
		여성신문, 오마이뉴스 각 5	뉴스1, 연합뉴스 각 4	
성평등	45	여성신문, 오마이뉴스 각 5	뉴스1, 연합뉴스 각 4	
젠더	45	연합뉴스, 한겨레 각 5	오마이뉴스 4	
군면제	13	연합뉴스 2	인사이트 2	그외 언론사 각 1
성갈등	10	헤럴드경제, 서울경제 각 2	메트로신문, 세계일보 시사포커스, 아시아경제, 인사이트, 주간조선 각 1	
출산	9	MBC, YTN, 노컷뉴스, 뉴스1, 뉴스1, 더팩트, 메디칼업저버, 세계일보, 한겨레 각 1		
역차별	6	데일리한국, 에너지경제, 조선일보, 팩트경제신문, 한겨레, 한국경제 각 1		
합계	1,000			

### 2 기사 성격별 모니터링 기사 수

모니터링 진행한 전체 1,000건의 기사 중 스트레이트 및 해설기사의 성격을 지닌 기사는 819건, 81.9%로 전체 기사의 다수에 해당했다. 논평, 사설 칼럼을 포함한 사설 성격의 기사가 181건, 18.1%였다.

표3 기사 성격별 모니터링 기사 수

	기사 성격	기사 수	비율(%)
1	스트레이트 및 해설 기사	819	81.9%
2	사설	181	18.1%
	합계	1,000	100%

### 3 기자 성별에 따른 정보원 활용

기자 성별에 따른 정보원 활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기자 성별과 정보원의 성별을 분석했다. 기자의 성별을 알 수 없는 경우(70건), 여러 명의 기자가 함께 작성해 기사 작성자의 성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24건)는 제외했다. 정보원의 구분은 14개 유형과 성별로 분류했다. 온라인 기사라는 특징으로 인해 정보원의 성별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는 전부 제외했다. 다수의 정보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사당 최대 3명까지 주요 정보원의 성별을 분석했다.

기자의 성별을 떠나 전체 정보원의 성별을 파악했을 때, 남성 정보원의 수가 729명으로 여성 정보원 449명보다 월등히 많다. 기자 성별을 불문하고 남성 정보원을 인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특히 기자 성별에 따른 정보원 유형에서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인 집단은 '정치인'이었다. "정치인이 젠더 갈등을 정치 이슈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남성 기자들은 이를 그대로 중계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 기자, 남성 기자 모두 남성 전문가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 기자의 경우 여성 정보원을 11명 활용할 때, 남성 정보원은 44명을 활용하는 것으로 치우쳐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관련 주제 전문가 여성보다 일반 전문가 남성을 인용하는 경향이 큰 것을 보여준다.

표4 \_\_\_\_ 기자 성별에 따른 정보원 활용

기자 성별	정보원 성별	정보원 유형											합계
		시민 사회 단체	여성계 및 여성 단체	정부 기관	정치인	전문가	시민	누리꾼	온라인 커뮤니티	SNS	청와대 청원	기타	
여성 기자	여성	22 (32.8%)	17 (54.8%)	15 (30.6%)	64 (12.9%)	24 (22.2%)	32 (35.5%)	9 (31%)	10 (19.6%)	1 (9.1%)	3 (17.6%)	47 (24.6%)	244
	남성	14 (20.9%)	3 (9.7%)	9 (18.4%)	167 (33.6%)	29 (26.8%)	15 (16.7%)	9 (31%)	20 (39.2%)	2 (18.2%)	7 (41.2%)	42 (22%)	
남성 기자	여성	11 (16.4%)	11 (35.5%)	17 (34.7%)	45 (9%)	11 (10.2%)	23 (25.5%)	3 (10.3%)	6 (11.8%)	4 (36.4%)	3 (17.6%)	41 (21.5%)	175
	남성	20 (29.9%)	0	8 (16.3%)	221 (44.5%)	44 (40.37%)	20 (22.2%)	8 (27.6%)	15 (29.4%)	4 (36.4%)	4 (23.5%)	61 (31.9%)	
합계		67 (100%)	31 (100%)	49 (100%)	497 (100%)	108 (100%)	90 (100%)	29 (100%)	51 (100%)	11 (100%)	17 (100%)	191 (100%)	1,141

### 4 '젠더 갈등' 유발 요인

젠더 이슈와 관련된 인터넷 기사에서 '젠더 갈등'이 발생하는 요인들을 모니터링했다. "군대 및 여성 징병제"가 151건으로 '젠더 갈등'의 유발과 관련된 키워드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이어 정치인의 인기 영합을 위한 요인으로 '젠더 갈등'이 사용되는 사례가 137건으로 뒤를 이었다. '남성 혐오'로 인해 젠더 갈등이 유발된다는 논조의 기사가 121건이 있었다. 20건 이상 반복적으로 '젠더 갈등'의 유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14건은 다음 [표5]와 같다. '젠더 갈등' 유발 요인을 제시하고 있는 많은 기사들 중 젠더 이슈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서술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남성혐오'(121건)를 '젠더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반면 여성 혐오(29건)는 매우 적다.

표5 \_\_\_\_ '젠더갈등' 유발 관련 키워드 (내림차순)

젠더 갈등 유발 요인	건수
군대 및 여성 징병제 관련	151
정치적 이유 (정치인의 인기 영합)	137
남성혐오	121
성차별적 구조	87
여성이족부 관련(여가부의 존재, 폐지)	59
성역할 고정관념, 젠더 차별, 불평등	52
온라인 커뮤니티 및 온라인 성폭력	44
청년 세대의 경제적 불안정, 불안, 불평등	44
여성 정책, 정부 운영, 사회 전반	37
갈등 유발식 언론 보도	30
여성혐오	29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	27
페미니즘	24
남성 역차별	24

### 5 성평등·성차별적 기사 및 내용

'젠더 보도'와 관련해 긍정적 내용 및 구성을 담은 기사는 총 29건이었다. 이는 다양한 입장의 균형적 반영과 젠더 이슈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젠더 갈등'의 구조적 원인과 해결 방안 제시 여부에 따라 선정했다. '젠더 갈등'을 조장하고, 단순히 일회적 사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기사들은 88건이 발견되었다. 성차별적 기사 내용은 크게 5가지로 분류되었다. 이는 크게 ① '젠더 갈등'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사, ② '이대남', '이대녀'와 같이 특정 성별 및 연령대를 집단화하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대립 구조를 강조해 적대감을 유발하는 기사, ③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주장을 취재 없이 작성한 기사, ④ 이미지와 영상을 통해 특정 성별과 상황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하는 기사다.

표6 \_\_\_\_\_성평등 성차별적 기사 및 기사내용

구분	건수	구분	건수
성평등적 내용 균형적 반영, 명확한 근거 제시, '젠더 갈등'의 구조적 원인과 해결방안 제시	29	성차별적 내용	
		'젠더 갈등' 부각	14
		자극적 표현으로 대립구조 강조, 적대감 유발	30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주장을 취재 없이 작성	18
		특정 성별의 입장 대변	21
		이미지와 영상으로 특정 성별과 상황에 대한 왜곡된 인식 조장	3
합계	29	합계	88

## [ 내용 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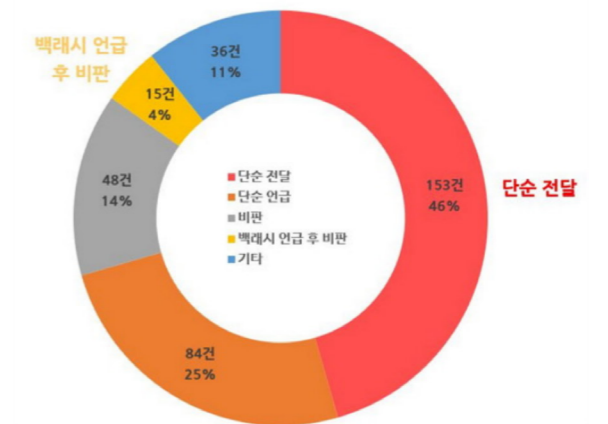
### 1 성평등적 내용

#### 젠더 이슈와 관련해 명확한 근거 제시

젠더 이슈에 대해 명확한 근거 및 취재 없이 반복되는 기사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제기된 논란을 그대로 전달하거나 유사 사례를 단순 언급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젠더 관련 사안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성평등 의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기사를 성평등적 기사 사례로 선정했다.

언론사 / 날짜	기사제목	분석
미디어오늘 6/28	'집게 손가락 포스터' 논란, 언론이 키운 페미니즘 백래시	본 기사는 'GS25 포스터' 논란에 대해 언론이 사실 검증 없이,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주장을 보도했기 때문에 "허구의 혐오"를 키웠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요 언론사들의 보도 방식이 어떤 문제점을 함의하고 있는지, 혹은 검증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사의 보도 방식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언론의 보도 행태가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왜곡 전달해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음을 정리하고 있다.

#### GS25 포스터 관련 보도 내용 분석



△ GS25 포스터 관련 보도내용 분석(5/1~6/13) ©민주언론시민연합

△ GS25 포스터 관련 보도내용 분석(5/1~6/13) ©민주언론시민연합

### '젠더 갈등'의 구조적 원인과 해결방안 제시

'젠더 갈등'의 현상을 단순히 반복하는 여러 기사 속에서 '젠더 갈등'으로 명명되는 사안의 사회 구조적 원인과 경제적 상황 등, 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기사들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아래 기사는 '젠더 갈등' 사안을 현상을 단순히 언급하거나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언론사 / 날짜	기사제목	분석
비마이너 7/15	페미니즘 백래시가 무너뜨리는 것	'안티 페미니즘'이 특정 사상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또한 '이대남(이십대 남성) 대 이대녀(이십대 여성)'의 대립적 구도에서 차별의 구조가 지워지고, 폭력의 성격이 삭제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혐오', '젠더 갈등'을 다루고, 바라보는 방식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미디어스 7/7	취재없이 남녀 갈등 부추긴 '핫팬츠' 보도	기사는 젠더 문제는 가부장제에서 비롯된 불평등한 젠더 권력 구조가 기반인데 젠더 문제를 성별 간의 싸움으로만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젠더 갈등과 관련된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말하며, 젠더 갈등에 원인이 되는 언론의 행태를 보도하고 있다.
한겨레 5/5	'성평등 반대' 내세운 백래시, 경찰은 왜 타협하나	기사는 성평등 사회로 변화하는데 반발하는 '백래시'(Backlash) (반발성 공격)가 잇따르고 있다는 현상에 대한 보도와 함께 성평등에 반대하는 일부 공격이 너무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을 조망했다. 백래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공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미디어오늘 6/28	'집게 손가락 포스터' 논란, 언론이 키운 페미니즘 백래시	GS25 집게 손가락 포스터 관련 보도 내용을 양적으로 분석한 결과 단순 전달하거나 단순 언급한 보도량이 전체 보도 중 71%로 언론의 비판적인 접근이나 분석은 적었음을 보여준다. 이 외에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한 결과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 확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언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프레시안 7/16	'이대남 대 이대녀' 허구의 프레임이 지워버린 현실들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이대남, 이대녀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두고 싸우며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며 오히려 중요한 인권 사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토론하지 않는 현상을 비판한다.
경향신문 5/4	'집게손 모양'은 다 남성 혐오? ...누구를 위한 논쟁인가	'남성 혐오' 논란이 남초 커뮤니티에서 조직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명확히 짚음으로써 논란의 경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였고, 또한 언론과 정치권이 이 문제를 언급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성계의 말을 인용하여 남성혐오는 여성혐오와 동일 선상의 것이 아니고, 젠더갈등은 언론에서 심각하게 프레임화되고 있음을 보도한다. 여성이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우울증, 실업, 자살률 등)은 소외되지만 남성들은 실체 없는 무기(남성혐오)를 온라인 상에서 들고 나와도 그들의 말이 쉽게 공론화되는 성차별적인 구조 또한 짚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5/26	여성이 군대 가는 것이 평등일까	현재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사회적·문화적으로 처해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기계적 평등을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점과 불평등한 구조를 젠더 갈등의 틀로 사용하는 정치권과 국가의 무책임함을 지적하고 있다.

언론사 / 날짜	기사제목	분석
프레시안 5/25	한국의 '이대남'과 미국의 '브로플레이크' ...'백래시의 시간'이 왔다	'이대남' 현상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 현상임을 명확히 지적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부성우선주의 철폐, 노동자 인권 보장 등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여성신문 6/12	[정치의 비밀정원] 백래시와 성차별주의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젠더 갈등이라고 프레임화된 현상들의 기제(구조)를 뿌리 깊은 성차별주의라고 지적하며, 남성들의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해결되어야 이 현상이 해소된다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5/3	'이대남·이대녀' 프레임에 젠더 갈등 집착한 정치권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본 기사는 '이대남', '이대녀' 프레임을 만들고 20대 남성의 표심을 잡겠다는 것에 열을 올리는 일부 정치인들이 '20대 남성 역차별'이라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주장을 통해 젠더 갈등, 여성에 대한 혐오에 열을 올리고 있음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기사는 대부분의 기사들이 적절한 취재나 검증 없이 자극적인 기사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 사태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짚으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향신문 5/18	미러링을 무력화하고 안티 페미코인을 등장시킨 '백래시'	본 기사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불거진 'GS25 편의점 포스터' 사건 이후의 일련의 논란들이 실제로는 여성에 대한 혐오, 여성에 대한 불평등,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의 현상임을 구조적으로 지적하며, 그러한 상황을 언론에서 '젠더 갈등' 프레임으로 은폐하고 있음을 문제제기하고 있다.

## 2 성차별적 내용

### ① '젠더 갈등' 부각 및 조장

언론 보도에서 '젠더 갈등' 및 젠더 이슈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담은 기사를 쉽게 볼 수 있다. '성차별', '성불평등'에서 기인한 사건을 '젠더 갈등'의 틀로 담아내는 기사들이 있다. 예컨대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 행위를 '갈등'으로 표현하며 왜곡하는 것이다. 이는 젠더 간 위계 관계 및 혐오, 불평등을 제대로 볼 수 없도록 만든다. 이러한 갈등 틀은 젠더 갈등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한 제목, 첫 문장, 본문 내용 등에서 '해결 중심 프레임'이 아닌 '갈등 중심 프레임'으로 강조된다.

언론사 / 날짜	기사제목	분석
헤럴드POP 6/12	[POP이슈] ○○○, '허버허버' 사용에 갑론을박 "남성 혐오"vs"에민혜"	한 여성 연예인이 '남성혐오' 단어라고 여겨지는 '허버허버'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논란이라고 프레임하여 보도하며 논란을 더 격화시키고 있다. 기사에서 인용되고 있는 해당

언론사 / 날짜	기사제목	분석
		커뮤니티의 논란이 사회적으로 보도될 가치가 있는지를 고려했을 때, 이는 조회수 만 대, 댓글 수백개 정도의 이슈에 그친다. 이러한 논의를 보도함으로써 진짜 논란이 되고 있다.
스포츠경향 6/29	미혼남녀 '일상서 접하는 젠더 갈등' 男 1위 "데이트 비용" 여성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젠더 갈등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질문에 대해 남성은 '데이트 비용 부담'이라고 답했고, 여성은 '성추행'으로 답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다.  선택지에 '성추행'이라는 선택지를 넣은 것 자체가 성폭력을 폭력의 문제로 보지 않고 단순히 남성과 여성 간의 대립, 갈등으로 바라본다는 점을 시사한다. 해당 기사는 이 설문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받아쓰으로써 '젠더 갈등'을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대등한 집단 간의 갈등으로 프레임하여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조선일보 1/13	AI 이루다, 이번엔 젠더 갈등	본 기사는 'AI 챗봇 이루다'에 대해 일부 남성 이용자들이 성희롱을 가했던 사건에 대한 비판 여론을 '젠더 갈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본질은 젠더 갈등이 아닌 여성에 대한 폭력과 범죄의 문제이다. 이러한 보도 양태는 오히려 젠더 갈등을 강조하고 유발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데일리안 7/1	끊이지 않는 구설수 ...소비자 신뢰 회복 급선무 [합병 GS리테일의 숙제③]	GS리테일의 여러 소식을 다루며 GS25 메갈리아 손가락 사건 내용을 함께 다뤘다. 이러한 기사는 남성 혐오 의혹을 기정사실하고 그것이 기업에 큰 타격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언론사 / 날짜	기사제목	분석
한국경제 6/27	'그 손가락'이 또 ...포항시 백신 포스터 남혐 논란	제목에 "그 손가락이 또"라며 남성 혐오 의혹을 받고 있는 집계 손가락 이미지가 또 사용되었다며 자극적으로 기사 제목을 작성했다.
매경이코노미 6/17	1020·남성 "젠더 갈등 심각" 男 31% "남혐 회사 불매로 응징"	제목에 '심각'이라는 단어를 기재해 성별 간 대립 구도를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유리천장', 성차별, 여성들이 겪는 불평등의 문제를 삭제하고 여성들이 먼저 이기적으로 굴었기 때문에 남성들이 반발하는 것이라며 특정 성별의 입장에서 '젠더 갈등' 현상을 편파적인 시각으로 기술하였다.
중앙일보 4/17	힘썌·오조오억·보이루 ...남혐·여혐 날 선 '언어 전쟁'	제목에서 '언어 전쟁'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또한, 본문 중 '대표적 성차별 사이트인 메갈과 일베', '이처럼 일베와 메갈은 일란성 쌍둥이인 셈'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성별 간 대립 구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③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주장을 취재 없이 기사로 작성

특정 개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자 되는 젠더 관련 주장, 이슈에 대해 명확한 사실 확인 및 근거 제시 없이 보도하는 사례들은 언론 보도에서 '젠더 갈등'의 양상을 양산하고, 심화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뿐만 아니라 취재 없이 타 언론사의 기사를 재생산하는 기사는 젠더 이슈가 가십거리로 양산되는데 기여한다. 그리고 문제 되는 양상 중 하나는 취재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경우다. 이 경우 사실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로 개인의 의견을 여론으로 과장할 우려가 있다.

### ② 자극적 표현으로 대립구조 강조, 적대감 유발

젠더 이슈와 관련해 '갈등', '심각', '우려' 등의 표현 사용은 '성차별', '성불평등'의 상황을 단순한 '갈등'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또한 젠더 이슈와 관련해 '이대녀'(20대 여성), '이대남'(20대 남성)과 같은 집단화된 명칭은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이분법적으로 집단화함으로써 대립 구조를 강화한다. 기사에서 특정 성별의 입장을 대변하며 성차별적 주장을 부각한다거나, 검증과 판단 없는 내용으로 성차별을 조장하는 사례도 있었다.

언론사 / 날짜	기사제목	분석
한국면세뉴스 5/7	어디서 지령 떨어졌나? 남성혐오 표현 또 있었다 ...업계 1위 ○○○○도 '그 손가락' 무더기 발견	"어디서 지령 떨어졌나?"라는 기사를 통해 특정 단체가 남성 혐오 표현을 은밀하게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 확산시키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였고, 메갈리아의 로고와 유사하다는 손가락모양을 "그 손가락"이라며 말하면 안 되는 단어를 넌지시 말하는 듯 조롱하며 기사 제목을 작성했다.
조선일보 6/24	"문피아, 페미 눈치 보냐" 그림속 여가슴 졸였다가 젠더갈등	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지를 수정한 문피아에게 "페미 눈치 보냐"와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대립구조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 ④ 이미지와 영상으로 왜곡된 인식 조장

기사에서 종종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입니다"와 같은 문구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사 삽화를 통해 기사의 이해도를 높이는 관행이 있기에 기사 내용과 삽화를 온전히 구분해서 인식하기는 쉽지 않다. 기사 제목 혹은 내용은 이미지와 함께 수용된다. 따라서 뉴스에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미지, 여성과 남성이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동등하게 대립하는 이미지, 여성을 수동적이고 무력하게 묘사하는 이미지,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이미지 등은 특정 성별, 사상에 대해 부정적이고, 왜곡된 인식을 전달할 수 있다.





언론사 / 날짜	기사제목	분석
뉴스1 5/6	'집계손-여성징병제' 확산일로 젠더갈등 ...파멸뿐인 혐오 멈추려면	여성과 남성이 대립하는 이미지를 삽입해 대립 구도를 부각하고 있다. 해당 이미지는 두 언론사의 기사에서 활용되었다.
파이낸셜 뉴스 6/28	일상 속 '젠더 갈등' 1위 男 데이티브용, 女 성추행	
데일리안 7/2	"성매매 끊으면 장학금 준다"는 여성재단...젠더 갈등 또 폭발	본 기사는 저소득층 성매매 여성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여성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건을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한 기사이다. 기사에 삽입된 지갑에서 돈을 지불하는 모습과 여성의 신체가 함께 찍힌 사진은 여성을 또 다시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있다.
		

## [ 나가며 ]

이번 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뉴스 기사에서 흔히 보게 되는 '젠더 갈등', '이대녀', '이대남', '여성혐오(여혐)', '남성혐오(남혐)' 등의 단어가 가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성차별', '성불평등'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들을 바탕으로 다층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이는 '젠더 갈등'이라는 단어로 대체되어가고 있다.

언론이 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여성 이슈를 다루기 시작한 것은 1990년 대 이후부터다. 그러나 여성 이슈 보도는 여성의 이슈를 심층적이고, 깊이 있게 보도하기보다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사건 사고 위주의 보도에 치중되어 있다. 이러한 양상은 기업 마케팅에서 젠더 논란으로 연결되는 문제, 성별과 관련된 이분법적인 갈등 구조, 정치권의 여성 이슈 몰이로 인해 여성 이슈 자체가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되기보다 그 때 그 때 발생하는 사건 중심의 보도 경향이 강화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성차별, 성불평등과 관련해서 역사적, 문화적 설명이 필요한 지점을 단순히 사건 중심으로 보도하게 되면 이는 수용자의 오해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더욱 주위가 필요하다.

이는 언론이 '젠더'와 관련된 사건들을 일회적이고 흥미로운 사건으로 보고,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 구도로 파악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요인들이다. 또한 전혀 관련 없는 주제에 대해서도 불필요하게 특정 성을 집단화해서 표현하며 갈등 양상을 만들고 있음이 드러났다. 성차별 현실을 젠더 갈등으로 대체하려는 이러한 경향은 갈등 원인에 대한 파악 없이 현상 그 자체를 문제 삼으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심화하고 있다. 언론은 보도 내용에서 '젠더'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거나 이슈를 다룰 때 이를 하나의 자극적인 소재로 삼아서는 안된다. 이는 젠더 그 자체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젠더 이슈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사회구조나 문화적 배경과 관련된 근본적 원인 파악이 아닌 자극적인 현상으로 소비하는 동향을 만들어낼 뿐이다.

젠더 균형적인 언론 보도와 젠더 이슈를 일회성 사건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닌 젠더 차별의 현상을 명확히 짚어내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젠더 이슈를 흥미를 유발하는 일회성 소재로 소비해서는 안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혹은 특정 집단의 주장에서 시작된 논의를 반복적으로 받아쓰기하는 기사 또한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하나의 요인임으로 사실 확인을 기반으로 기사를 내는 원칙이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다.



[ 부록: 전체 모니터링 매체 및 기사 수 ]

연번	언론사	기사 수	연번	언론사	기사 수
1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1	31	뉴스엔미디어	1
2	강원일보	1	32	뉴스위치	2
3	게임톡	1	33	뉴스위커	3
4	경기신문	4	34	뉴스웍스	1
5	경기일보	4	35	뉴스원	1
6	경남도민일보	1	36	뉴스웨이	2
7	경북신문	1	37	뉴스클레임	1
8	경북일보	2	38	뉴스토마토	2
9	경인매일	1	39	뉴스톱	1
10	경인일보	1	40	뉴스투데이	4
11	경향신문	36	41	뉴스포스트	1
12	교수신문	1	42	뉴스핌	8
13	국민일보	19	43	뉴시스	30
14	국제뉴스	2	44	뉴제주일보	1
15	국제신문	2	45	단비뉴스	1
16	굿모닝경제	1	46	대구MBC	1
17	굿모닝충청	1	47	대구신문	2
18	금강일보	4	48	더스쿠프	1
19	기자협회보	2	49	더파워	1
20	김해뉴스	3	50	더팩트	7
21	내일신문	2	51	더퍼블릭	1
22	넥스트데일리	1	52	더피알	1
23	노동과세계	1	53	데일리안	9
24	노동과희망	2	54	데일리한국	2
25	노컷뉴스	14	55	독서신문	1
26	농촌여성신문	1	56	동아일보	3
27	뉴데일리	1	57	디지털타임스	9
28	뉴스1	31	58	레디앙	2
29	뉴스락	1	59	레이디경향	1
30	뉴스엔	2	60	르몽드	1

연번	언론사	기사 수	연번	언론사	기사 수
61	매경이코노미	4	93	슬로우뉴스	1
62	매경프리미엄	1	94	시민의소리	1
63	매일경제	9	95	시민일보	1
64	매일노동뉴스	1	96	시빅뉴스	1
65	매일신문	13	97	시사HN	6
66	매일안전신문	2	98	시사오늘	3
67	매일일보	2	99	시사위크	1
68	머니S	2	100	시사저널	3
69	머니투데이	18	101	시사저널이코노미	1
70	메디칼업저버	1	102	시사포커스	4
71	메트로신문	1	103	시선뉴스	1
72	문화일보	2	104	신동아	2
73	미디어스	2	105	신아일보	1
74	미디어오늘	6	106	싱글리스트	1
75	미디어파인	1	107	아시아경제	25
76	미디어펜	3	108	아시아타임즈	2
77	민주신문	1	109	아시아투데이	3
78	민중의 소리	5	110	아이뉴스24	4
79	베이비타임즈	3	111	아주경제	6
80	부산일보	6	112	어린이동아	1
81	브레이크뉴스	3	113	업다운뉴스	1
82	비마이너	1	114	에너지경제	1
83	비즈한국	1	115	엑스포츠뉴스	2
84	새전북신문	2	116	여성신문	26
85	서울경제	13	117	연합뉴스	28
86	서울신문	22	118	연합뉴스TV	2
87	세계일보	20	119	영남일보	2
88	스카이데일리	3	120	오마이뉴스	20
89	스타뉴스	2	121	우먼타임스	4
90	스타데일리뉴스	1	122	원불교신문	1
91	스포츠경향	5	123	월간조선	5
92	스포츠조선	2	124	월요신문	1

부록

부록

연번	언론사	기사 수	연번	언론사	기사 수
125	위클리오늘	2	157	텐아시아	3
126	위키트리	19	158	투스타뉴스	3
127	의학신문	1	159	투데이신문	6
128	이데일리	23	160	파이낸셜뉴스	21
129	이코노믹리뷰	1	161	팩트경제신문	2
130	이투데이	10	162	펜앤드마이크	1
131	인민망	1	163	포쓰저널	1
132	인사이트	24	164	프레시안	8
133	인천in	2	165	한겨레	39
134	인천투데이	1	166	한겨레21	4
135	일다	1	167	한국경제	22
136	일요신문	1	168	한국기자협회	1
137	잡포스트	1	169	한국대학신문	1
138	전국매일신문	2	170	한국면세뉴스	5
139	전북도민일보	1	171	한국일보	30
140	전북일보	1	172	한스경제	2
141	제민일보	3	173	허프포스트코리아	4
142	조선비즈	3	174	헤럴드POP	1
143	조선일보	27	175	헤럴드경제	17
144	주간경향	1	176	BBC	1
145	주간동아	2	177	CJB청주방송	1
146	주간조선	3	178	CNB뉴스	2
147	중도일보	1	179	EBN	1
148	중부일보	2	180	e대한경제	2
149	중앙SUNDAY	4	181	FETV	1
150	중앙일보	27	182	G밸리뉴스	2
151	참세상	1	183	ifpost	2
152	채널A	1	184	IT조선	1
153	청년일보	3	185	JTBC	3
154	충청일보	1	186	KBS	11
155	쿠키뉴스	6	187	KTV국민방송	1
156	탑스타뉴스	1	188	MBC	8

연번	언론사	기사 수
189	MBC연예	2
190	MBN	11
191	MBN 뉴스	1
192	OBS	1
193	SBS	2
194	SRE타임스	1
195	TBS	2
196	topclass	1
197	TV조선	3
198	UPI뉴스	7
199	YTN	21
합계		1,000

#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 이슈 모니터링 : 젠더 이슈 보도

### 1. 모니터링동가:

#### ■ 내용분석

##### 1. 성평등적 내용

날짜	언론사	url	기사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사진/분석)

##### 2. 성차별적 내용

구분	날짜	언론사	url	기사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사진/분석)
젠더(성별) 고정관념을 조장					
자극적 표현으로 대립구조 강조, 적대감 유발					
취재 없이 기사 작성					
특정 성별 입장 대변					
이미지와 영상으로 왜곡된 인식 조장					
기타					

##### 3. 종합의견

#### ■ 성평등 지표

1. 성평등적 관점에서 다양한 입장을 균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가?
2. 젠더 관련 이슈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였는가?
3. '젠더 갈등'의 원인이 되는 성차별의 구조적 측면을 강조하는가?  
- '젠더 갈등'으로 명명된 사안의 구조적 원인과 해결방안 제시

#### ■ 성차별 지표

1. 보도기사는 '젠더 갈등'을 부각하고 있는가?  
- '성차별', '성불평등'에서 기인한 사건을 '젠더 갈등 프레임'으로 왜곡  
- 기사 첫 문장과 본문 내용에서 '해결 중심 프레임'이 아닌 '갈등 중심 프레임'을 강조
2.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성별 간 대립 구도를 강조하거나, 특정 성별에 대한 적대감을 유발하고 있는가?  
- 기사 제목과 내용에서 '갈등', '심각', '우려' 등의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며, '젠더 갈등'을 유발, 조장  
- '박멸', '궤멸' 등과 같은 전쟁 은유  
- '이대남', '이대녀' 등의 집단화된 명칭 사용
3.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주장을 취재 없이 기사로 작성하였는가?  
- 남성 역차별 주장을 사실 검증 없이 보도  
- 특정 개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주장에 대해 명확한 근거제시 없이 사실로 간주하여 보도  
- 타 언론사의 기사를 취재와 검증 없이 받아쓰는 보도
4. 특정 성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 특정 성별의 입장을 편파적인 시각으로 기술
5. 이미지와 영상으로 특정 성별과 상황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하는가?  
- 기사의 내용과 무관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미지를 썸네일로 사용  
- 여성과 남성이 대립하는 이미지 사용  
- 여성을 수동적이고 무력하게 묘사하는 이미지 사용  
-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는 이미지 사용



발행인  
이유림

편집인  
양선희

편집  
최 봄 · 김예리 · 이지은  
서울YWCA 여성운동국

감수  
김수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여성학 협동과정 교수

발행처  
서울YWCA

협력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07)

## 이슈 모니터링 : 젠더 이슈 보도

2021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 분석 보고서